■ 광주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 불법주차 단속

"교통 흐름 빨라졌다" 시민들 호응
"손님 뚝 끊겼다" 도로변 상가 울상

'운전질서 확립에는 약(藥), 도로변 상인에게는 독(毒)?'

지난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단속 시내버스 카메라 장착 단속시스템'(이하 시내버스 단속)이 도입되면서 도로변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운전질서 확립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로변 점포에는 단속 이후 손님이 뚝 떨어진 것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문구점을 하는 이모(46)씨는 15일 시내버스 단속카메라에 불법 정차한 고객 차량이 찍혀 항의를 받았다며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북구청에 제기했다.

광주시가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단속에 나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씨는 "단속에 적발된 손님들의 항의는 물론 계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내버스 단속 이후 각 구청에는 이씨와 같은 항의성 민원전화가 하루 평균 30~40통 이상 빗발치고 있다.

현재 단속카메라 장착 버스는 순환 01번·진월 07번·첨단 09번·봉선 37번이다. 이들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불법주정차의 경우 10분 이상 주차하게 되면 무작위로 적발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각 자치구는 교통 흐름과 불법 주정차 현황 등을 검토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기간인 7~8월 사이 하루 평균 불법주정차 건수가 1351대를 넘었으나 지난 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되면서 시범기간의 3분의 1수준인 하루 380대로 줄어 운전질서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활한 교통흐름 등을 위해 설치된 시내버스 단속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적발된 단속 건수는 ▲동구 305건 ▲서구 659건 ▲남구 170건 ▲북구 590건 ▲광산구 563건 등 모두 2287건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지역 公園 '치안 불안'

358곳 중 CC-TV설치 9.5%인 34곳에 불과

광주지역 공원에서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20일간 광주지역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기타공원 등 358곳의 방범시설 설치현황을 자체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CC-TV(폐쇄회로)가 설치된 공원은 전체의 9.5%인 34곳에 불과했다.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도 31곳(8.65%)이나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등급(13곳·위험지역)·B등급(74곳·우려지역)·C등급(271곳·관심지역) 등 3등급으로 분류, 맞춤형 방범활동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A등급 공원에 대해서는 CC-TV·가로등·비상벨·안내표지판을, B등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CC-TV·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오윤수 생활안전과장은 "공원 등급화는 학기 초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비행 방지는 물론 공원 전반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치안 만족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위험지역 공원(13곳)

분류	공원명	분류	공원명
어린이	효광	어린이	삼각
〃	쌍학	〃	둘리
〃	푸름	〃	문산
근린	문화	근린	제1풍영정
어린이	태봉	〃	산정
〃	미리내	〃	생태
〃	효동		

한편, 올 들어 지난 7월 31일 현재 광주지역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발생 건수는 모두 95건이다. 지난 한 해에는 모두 283건의 범죄가 발생했었다.

시간대별로는 정오~오후 5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정~새벽 4시(19건) ▲오후 5시~밤 8시(11건) ▲오전 7시~정오(7건) ▲새벽 4시~오전 7시(2건)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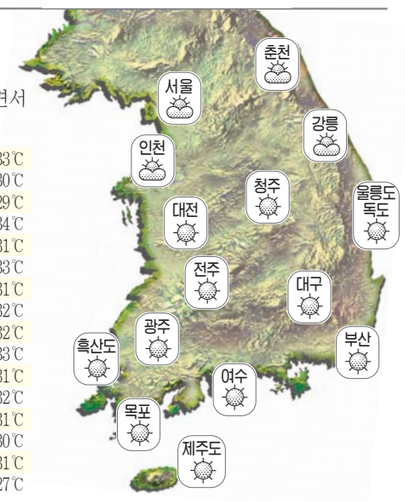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5분 해짐 18시 39분 달뜸 20시 20분 달짐 09시 36분

늦더위 지속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조금	22/33℃
목 포	구름조금	21/30℃
여 수	구름조금	24/29℃
나 주	구름조금	21/34℃
완 도	구름조금	21/31℃
구 례	구름조금	21/33℃
강 진	구름조금	21/31℃
해 남	구름조금	21/32℃
장 흥	구름조금	21/32℃
순 천	구름조금	22/33℃
영 광	구름조금	21/31℃
진 도	구름조금	21/32℃
전 주	구름조금	21/31℃
군 산	구름조금	21/30℃
남 원	구름조금	19/31℃
흑산도	구름조금	21/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4:01 16:32	09:13 21:37
여수	10:54 22:52	04:30 16: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 씨						
최저/최고	22/31	22/27	21/25	21/25	19/24	18/24

조선대 총장 후보 토론회 5일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4대 조선대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 전남 '쯔쯔가무시 환자' 532명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발열성 질환 가운데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5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5일 지난해 법정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532명으로 전남도내 전체 발열성질환 감염자 586명의 90.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은 지난 2009년 쯔쯔가무시증 환자 680명보다 21.8%가 줄었음에도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과 대체일손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 부담액 등이 5억5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전남도와 손잡고 가을철 농업인에게 위협적인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 예방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전남농협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21개 농협 시·군지부에 홍보용 깃발을 설치한 데 이어 질병예방을 위한 토시 1만560켤레와 홍보용 광고지 42만장을 150개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나눠줬다.

또 전남도와 함께 국·도비 7000여만원을 들여 발병률이 높은 순천·광양·곡성·구례·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토시와 기피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청소년 절반 '술마신 경험'

최초 음주연령 13.6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경험률은 51.9%였다.

최초 음주연령도 13.6세로 2009년(13.7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음주경험율이 53.6%로 여학생(50%)보다 높았고, 학교 급별 음주경험은 중학생 38.2%, 고교생 65.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연간 10차례 이상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7.2%나 됐고, 한번 마시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다는 응답자도 19.6%에 달했다.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음주 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8.3%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